

선진교통문화로 광주 경쟁력 높이자



16 에필로그

광주일보의 지난 6월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선진교통문화 기획시리즈 '착한 운전, 사고 제로'를 연재,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쓴 광주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6개월, 각종 지표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교통문화지수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언 등이 힘을 합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펼쳐 온 성과다. 사회 곳곳에서 교통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다만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시민들의 질서외의 교통인프라 개선 문제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24일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8명)에 비해 14.8%(19명) 줄어든

것으로,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구별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구에서 각각 20~35%의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광산구의 경우 임방울대로 등 신설도로 개통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로 사망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도 최근 6개월간 크게 향상됐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교통문화 지수 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81.66점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순위는 지난해(5위)보다 두 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민·관·언 합동캠페인의 효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인구수와 자동차수 등을 기준으로 중상 이상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접수

가 높을수록 교통여건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은 당초 광주지검의 주도로 태동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법 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는 등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범시민운동본부는 내년에도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릴레이 운동을 파나갈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무인 단속카메라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31대를 추가 설치해 사망자를 1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백승민 사무국장은 "한 도시의 교통문화는 곧 그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광주의 법질서 수준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후원 :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안개 자욱한 광주 24일 오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결항되고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거북이 운행을 하는 등 출근길 불편이 잇따랐다. 광주 서구 금호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본 광주시가지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찰서 울려 퍼진 캐럴

광주 원각사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음악회

무진교회 예배당에선 무각사 합창단 공연

성탄절을 맞아 도심 사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음악회가 열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불교 신도들이 축하 공연을 갖는 등 종교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 잇따라 열린다.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보리수나무 합창단'은 25일 오전 11시 광주 무진교회 예배당에서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갖고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무진교회 성가대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무각사에서 열린 축하공연에 참석했던 대한 담례 성격이다.

무각사와 무진교회는 천주교 및 원불교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매월 2차례 씩 무각사 주차장에서 재활동품장터인 '보물섬장터'를 운영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이에 앞서 송광사 광주포교당인 원각사(주지 도요스님)는 24일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4년 시작돼 6회째를 맞는 성탄절야 음악회는 종교적 편향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요즘 세대에 경종을 울려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원불교단체까지 참여해 종교간 벽을 허물었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바자회와 아나바다 장터, 다문화 가정 돕기,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돕기 거리 캠페인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의 무대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25일 성탄절 당일엔 불교 신자들이 교회 예배당을 직접 찾아가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청 불교회(회장 김원석 경정)는 최근 성탄절을 앞두고 경찰청 입구에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6분

달돋이 12시 17분
달질 00시 33분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2/7°C	0.0
목포	3/8°C	0.0
여수	6/9°C	0.0
완도	5/8°C	0.0
구례	-1/7°C	0.0
해남	3/8°C	0.0
장흥	3/8°C	0.0
고흥	3/9°C	0.0
순천	2/8°C	0.0
영광	1/7°C	0.0
진도	4/8°C	0.0
전주	1/7°C	0.0
남원	-3/5°C	0.0
옥산도	5/8°C	0.0

해역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1.0~2.0m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1.0~2.0m	관심	낮음

해역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목포 07:36	00:3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9:53	12:47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여수 02:42	08:2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4:43	21:31

◇주간날씨

날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	-2/3	-3/2	-4/4	0/3	-3/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농산어촌 학생들 방학 중 영어 집중 교육

광주 17·전남 50개 학교

광주·전남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 영어 집중 교육을 받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목 기초학력미달 초등학생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겨울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집중지도 대상은 우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초등생 등 총 292개교 5천75명으로, 400여 명의 강사가 투입돼 ▲개인·그룹지도 ▲방문형 지도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연계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에 이용해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비
광주	농산어촌	방학 중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역 내 학교	무료
전남	농산어촌	방학 중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역 내 학교	무료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영암매력한우

영암매력한우

영암매력한우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영암매력한우

영암매력한우

영암매력한우